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④

但是不見性人 妄稱是佛
단시불견성인 망칭시불
此等眾生 是大罪人
차등중생 시대죄인
誑語一切眾生 令人入魔界
광타일체중생 영입마계
若不見性 說得十二部經教
약불견성 설득십이부경교
盡是說謊 魔家眷屬
진사말실 마가권속
不足佛家弟子 既不辨黑白
불시불가제자 기불변조백
憑何免生死 若見性即是佛
빙하면생사 약견성즉시불
不見性即是眾生
불견성즉시중생
若離眾生性
약리중생성
別有佛性可得者
별유불성가득자
佛今在何處 即眾生性
불금재하처 즉중생성
即是佛性也 性外無佛
즉시불성야 성외무불
佛即是性 除此性外

보시지계정진 광홍복리
得成佛否
득성불부
當曰不得
답말 부득
又問 因何不得
우문 인하부득
答曰 有少法可得 是有為法
답말 유소법가득 是有爲法
답말 유소법가득 사유위법
是因果 是受報 是輪迴法
시인과 시수보 시운회법
不免生死 何時得成佛道
불면생사 하시득성불도
成佛須見性
성불수시견성
若不見性 因果等語
약불견성 인과등어
是外道法 若是佛不習外道法
시외도법 약시불습외도법
佛是無業人 無因果
불시무업인 무인과
但有少法可得
단유소법가득
盡是謬佛 憑何得成
진사불빙 빙하득성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불즉시성 제차성의
無佛可得者 佛外無性可得
무불가득자 불외무성가득

但有住著一心一能一解一見
단유주착일심일능일해일견
佛都不許
불도불허

만약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 일컫는다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으로서 많은 중생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12부 경을 모두 연설한다 해도 다 악마의 말이요,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의 제자는 아니다. 이렇듯 겉고 흰 것을 분간할 줄 모르는데 무엇에 의지해 생사를 면하겠는가. 만약 견성하면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나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성품 밖에 부처가 없으니 부처가 바로 이 성품이다. 그러므로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 성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만약 견성을 못해도 열불하고, 경 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닦으면 부처가 됩니까." 대답했다. "될 수 없다." 다시 물었다. "어째서 안 됩니까." 대답했다.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으면 이는 유위법이요, 인과법이다.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하는 법이어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부처를 이루려면 견성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가 의도의 법이 된다. 만약 부처라면 의도의 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業)도 없고 인과도 없다.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언제 부처가 되겠는가. 마음이라든가, 기능, 견해, 소견 따위에 조금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부처는 이 모두를 허용하지 않는다."

問曰 若不見性 念佛讀經
답말 약불견성 열불송경
布施持戒精進 廣興福利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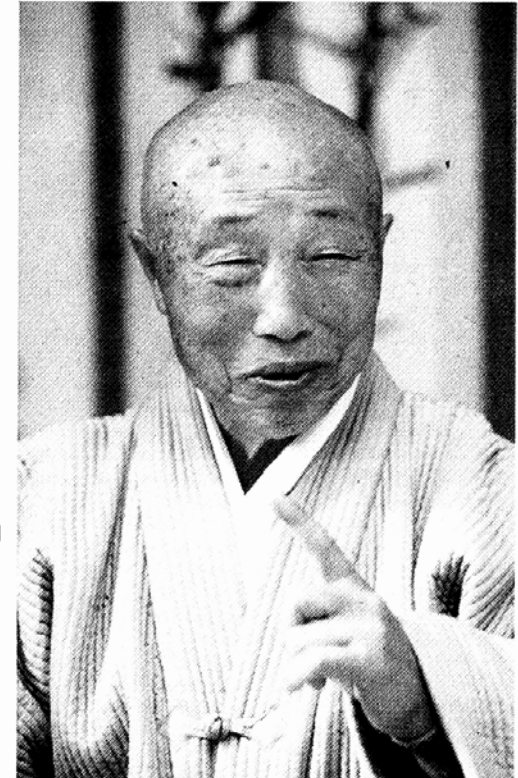
성수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원

올력 정월 초하루, 경진년 새배를 드린 기자에게 성수스님은 "오늘까지만 절을 받는다"며 땀뻑한 1만원 신권 한 장을 세뱃돈으로 주면서 "작년 한 해 사람 짓하고 산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재보고 달이보고 복되게 살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큰 절에서 모셔지는 어느 큰스님들과는 달리 성수스님은 굽이굽이 흐르는 덕유산 끝자락 마을 속에 선원을 세우고 주석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 안회면 황대마을 황대선원. 붉은 벽돌로된 30여평의 슬라브 법당

과 또 다른 건물 선실에는 동인거중인 15명의 스님들과 20여명의 보살들이 결재대중으로 정진하고 있었다.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수행,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해 하거나, 딱한 일이라며 지레 겁먹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새해이니 만큼 수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스님께 특히 재가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여쭙었다.

“생사관 알고 수행 몰입해야”

스님께서는 새해 덕담으로 사람같이 사는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같이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시지요.
▲사람 인(人)자를 아는 것이지요.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받들고 위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어른은 거느리고 용서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작년 갈팡질팡하고 살았지만 사람 인자의 원리원칙이 지켜지면, 수행 수심 수도는 절로 됩니다. 입은 헛말 하지 말 것, 손은 헛일 하지 말 것, 발은 헛걸음 걸지 말 것. 이렇게 세가지 잘 쓰면 집안도 나라도 망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자기 물건 자기가 관리 잘하는 것일 뿐입니다.



- 1923년 경남 울주출생
- 44년 부산 내원사서 성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 48년 법어사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67년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조계사 주지
- 68~72년 법어사 해인사 주지
- 78년 세계불교지도자 대회(일본주최) 한국측 대표
- 81년 조계종 총무원장
- 94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현재 황대선원 주석

스님의 수행처소는 다른 큰스님들과는 달리 전동사찰도 아니고 단솔하게 새로 지은 선원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 30대때 통도사 극락암 경봉노스님을 찾아보았습니다. 평생 조실 주지로 후학을 이끌어 오신 스님께서는 당시 70세이셨습니다. 내가 "도 닦으러 왔습니다"고 고하니 스님께서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 보시고 "잘왔네. 40년 선에 있어도 눈 뜬들 안왔어. 이 철에 인물이겠네"하시던 것입니다. 그냥 가서 쉬면 될텐데 발심이 성성했던 나는 스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40년 사업을 해도 직공이 제대로 일해지지 못하면 사장의 허물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대답 잘했다" 하시던 것입니다. 그래 또 나는 아뢰었어 요. "아랫사람 말을 깔아 뭉개시는 것입니까? 책임지십시오"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죽 뽑아 읊었습니다. "춘화만발은 누구든지 좋아하지만, 노화만발은 어느 누가 좋아하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첫째는 탁마의 중요성과 둘째는 절도 중도 새삼에 새 나물을 심어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께 무례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탁마는 어른에게는 어른 말, 아이에게는 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스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탁마해 주신 것입니다. 내 사상은 새 땅

요, 천탑 만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고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이라도 다시와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스승을 전념하는 출가스님들과는 달리 생활인 재가자들에게는 수행을 해야지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죄의식까지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행하기 전에 인생관부터 알아야 합니다. 즉 왜 수행을 해야하나 하는 목적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고(苦)를 해

결하기 위해 깨달음으로 향하는 정진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은 성장하고 또 20년 동안은 머물고 다시 20년은 담당하다가 마지막 20년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어야 80년 인생인데 죽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갈 곳을 찾고, 갈 길을 알아두고, 갈 곳이 누구인지 만나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도를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교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인색한 편입니다. 사실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도 닦기 전 단계의 과정을 생애 일생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첫째, 매일 자고 일어나서 첫 말 한마디만큼은 묵어두고 복이되는 말을 한다. 둘째, 매일 첫 걸음은 무거운 걸음을 걷는다. 셋째,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동안이라도 부처님 몸 모양으로 단정하고 원만하고 뚜렷하고 투철하며 자상하게 앉아 마음을 집중한다. 이 세가지만이라도 철저히 실천해 보세요. 수행은 행위로 중요하지만, 먼저 왜 해야 하는가 스스로 물어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공부 공자(字)에 빠져 죽는 바보 운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쟁이'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참선쟁이' '보살쟁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재발 남의 다리 굽지 말고 자기 걱정들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 발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들은 쉽게 발심해라 혹은 발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심은 어떤 것입니까?
▲발심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후만세토록 살 것이라는 착각에 몸뚱이를 태산같이 밀고 기대를 거는 어리석은 중생심을 깨는 것이 발심입니다.
수행은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발심을 했으면 수행의 장도에 나서야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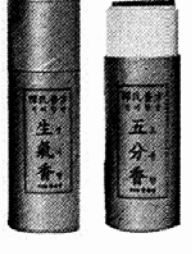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일연서 특급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를만 만듭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 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복의식, 관공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 『華嚴經』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물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행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五分향을 찾아나 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잠노하지 못하고 이해 동안 기분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법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배향·배향향을 얻어 태평해지며 향을 얻어 삼삼 삼 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향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후에 부처님께 공양하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몸모를 각 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맑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피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남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분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의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꽃이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내 해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